

작품 내용

제 목	빌린 빛에도 주소가 있다.
내 용	밤늦게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화면은 작은 도시처럼 빛난다. 검색창 하나를 열면 글들이 지나가고, 사진들이 떠오르고, 음악과 영상이 손끝까지 밀려온다. 너무 많아서 가벼워 보인다. 너무 빨라서 주인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빛에는 처음 켜진 방이 있다. 어떤 문장은 누군가의 새벽에서 왔고, 어떤 사진은 오래 기다린 한 사람의 눈에서 왔으며, 어떤 음악은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 흔들리다 겨우 소리가 된 것이다. 나는 예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그냥 인터넷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필요한 이미지는 저장했고, 마음에 드는 표현은 조금 바꾸어 썼다. 모두가 보는 곳에 있으니 모두의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쓴 짧은 글이 아무 표시 없이 다른 곳에 옮겨진 것을 본 적이 있다. 대단한 글도 아니었고, 세상을 바꿀 문장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 쪽이 비어버렸다. 글을 빼앗겼다가보다, 그 글을 쓰던 순간의 내가 지워진 것 같았다. 그때 알았다. 창작물은 물건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이름과 망설임과 실패와 고집이 담긴 작은 생애라는 것을. 저작권은 창작자를 높이 세우기 위한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약속이다. “당신이 만든 것을 내가 함부로 내 것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켜 불빛의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세상은 편리해질지 몰라도 조금씩 무례해진다. 빠르게 가져오고 빠르게 잊는 동안, 만든 사람은 점점 만들 이유를 잃는다. 출처를 남기는 일은 작아 보인다. 글 아래에 이름을 적고, 링크를 붙이고, 사진의 작가를 밝히고, 음악의 사용 조건을 확인하는 일. 그러나 그 작은 표시가 창작물의 길을 밝혀준다. 출처는 단순한 꼬리표가 아니라 귀가길이다. 떠돌던 문장과 이미지와 소리가 다시 자신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다. 물론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다. 저작권의 규정은 복잡하고, 허락의 범위도 상황마다 다르다. 무료 자료라고 해도 마음대로 고쳐 써도 되는지, 비영리 발표라면 괜찮은지,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와 사람이 만든 작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다. 하지만 몰랐다는 말이 언제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묻는 습관은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써도 되는가. 누구의 것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바뀌어도 되는가. 출처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저작권 인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진 한 장을 올리고, 짧은 글을 쓰고, 영상을 편집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며 매일 작은 창작을 한다. 오늘은 내가 남의 자료를 빌리는 사람이지만, 내일은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빌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먼 전문가들의 문제가 아니다. 남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 곧 내 이름도 지키는 일이다.

좋은 창작은 혼자 태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작품을 보고 배우고, 오래된 문장을 지나 새 문장을 얻고, 앞선 사람들의 불빛을 빌려 다음 길을 찾는다. 그래서 빌리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빌렸다는 사실을 숨기는데 있다. 빌린 빛을 내 태양인 것처럼 말할 때, 창작의 질서는 무너진다. 반대로 정직하게 밝힐 때, 빌린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

나는 앞으로 화면 앞에서 조금 느린 사람이 되고 싶다. 저장하기 전에, 복사하기 전에, 공유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사람.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누군가의 밤과 책상과 손끝을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가능한 한 정확히 말하는 사람. 이 글은 어디에서 왔다고. 이 사진은 누가 찍었다고. 이 음악은 누구의 수고로 만들어졌다고.

세상에는 주소 없이 떠도는 빛이 너무 많다. 이제 우리는 그 빛에 이름을 돌려주어야 한다.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창작을 가두는 담장이 아니라, 다음 창작자가 다시 불을 켤 수 있게 남겨두는 작은 등불이다. 빌린 빛에도 주소가 있다. 그 주소를 지우지 않는 마음, 거기서 더 좋은 문화가 시작된다.